



# 소망의 기도

참고하여

## 욥기 14:7-9을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찌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Rev. Dr. Adlene  
Kufarimai**

*Director of Connectional  
Ministries North  
Alabama Conference  
Birmingham, AL*

## **오늘날 절망은 우리 세계의 지평선에 걸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인종차별에서 오는 긴장감, 증오, 좌절, 실망, 그리고 삶에 도전적인 많은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에 먹구름이 끼인 것 같습니다. 이 계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들을 회개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삶이 썩어가는 오래된 나무 그루터기와 같아 보입니다. 욥기 14:7-9에서는 이러한 썩어가는 나무와 같은 상황에서도 산 소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인종으로 나뉘어진 이 세계를 위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새싹이 돋아나게 하소서.

우리 안에 화합의 새싹이 돋아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서로를 돌아보는 돌봄의 새싹이 돋아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용서와 화해의 새싹이 돋아나게 하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인종차별의 세계에서 정의를 구현하는 이 일에 함께하듯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소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사랑의 새 가지가 자라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이 소망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을 통한 소망과 믿음을 주셔서 인종적인 차원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Benjie B. Benitez, OSL**  
*Pastor at First UMC-  
Dagupan Temple  
Dagupan City,  
Philippines*

## **오 위대하신 창조주시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색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슬프고 약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거운 짐이 가볍게 됩니다. 만약에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우리를 낙심시키더라도, 우리는 무릎을 꿇고 우리의 힘을 모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소망이 있는 곳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힘든 시기에 우리의 소망이시고 힘이십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Rev. John Oda**  
*Program Manager,  
Asian American  
Language Ministry Plan  
Pinole, CA*

##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 자주 과거를 되새기거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려고 힘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처와 사랑하는 이들이 모두 무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지식을 우리가 갖게 하소서.

주님에 대한 지식이 날마다 자라도록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미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게 하소서.

이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오직 주님 안에서만 소망과  
믿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Kenneth Dulanias Base**  
*Local Youth Pastor  
at UMC-Mortola St.  
Cagayan de Oro City,  
Philippines*

##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무뎠던 마음을 흔들어 깨우사 정의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사 전쟁, 피난, 가난, 두려움, 걱정, 억압, 그리고 인종차별로 인해서 황폐해진 자들을 도와주게 하소서.

지쳐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마음과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손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악을 무찌르소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임재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되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되게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둘러주시고, 정의가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Reverend Michael  
Anthony Parker II,  
M.Div.**

*Lead Pastor at Journey  
United Methodist  
Church  
Temple Hills, MD*

## **만민의 소망되신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하지만, 우리는 불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불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스스로 두려움의 옷을 입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절망의 기슭에서 살지도, 쉬지도, 안식하지도 않기로 선택합니다. 모든 가능성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과 함께했던 우리의 역사는 주님의 비견할 데 없는 능력, 순간부터 영원까지의 끝없는 권능, 무한하신 은혜와의 만남에 대한 예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일상생활이라는 광야에서도 매일의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으며, 생명수가 되시고, 우리를 향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릇된 생각에 의해서 지친 자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 부당하게 희생된 자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 우리를 떠나가실 의향이 전혀 없으십니다. 주님은 터널 끝의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터널의 모든 어둠 속에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모습과 행동, 그리고 향기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무가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심지어 물에서 나는 냄새에도 의존하듯이,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성장을 활성화 시키는 그것이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되신 그 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Rev. Dr. Carlos  
A. Ramos Graulau**  
*GCORR Board Member  
Maj Deputy Wing  
Chaplain USAF  
& Dr. Waleska Serrano  
Columbus, MS*

## 주님,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소서.

주님, 인종 간 대립하고 있는 사회에 소망을 주소서.

주님, 사회 곳곳에서 인종차별에 직면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소서.

주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소서.

주님, 전쟁 중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소서.

주님, 양육 중 위기에 직면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소서.

주님, 세상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소서.

주님, 지역사회에서 자행되는 인종차별을 용감하게 대처하는 세계의 모든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소서.

주님, 인종차별의 문제를 다루는 모든 정치적 리더들에게 소망을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17 - 쉬지 말고 기도하라



**Sifa Hingano**  
Pastor at Cal-Nev  
Conference UMC  
Oakland, CA

### 기도하겠습니다. — ketau lotu.

창조주 하나님, 주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심지어 지구가 어떠한 모양이나 형체가 없을 때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소망 없는 세계에 생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계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각각의 모든 살아있는 종들로 채우셨고,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계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당신의 신성한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평등하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창조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창조물을 축복하셨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계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창조를 망친 것에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돌아섰으나, 여전히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세계와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이름 안에 오늘과 내일을 위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